

현대무용단

지그 Zoom

Modern Dance Group "Zoom"

동

이천계의 시선

추리는 사림을

1989.3.25.(토) 오후 4:30
오후 7:30

3.26.(일) 오후 4: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후원:현대무용단 주-□ 후원회

■ 클래식에서 로큰롤까지 예닐곱개의 음악에 현장적 즉흥성을 가지고 가부장적 태양열을 비치파라솔 처럼 차단하면서 낙하산처럼 하강하고 풍선처럼 날아오르는 한낮의 희고 푸른 "꿈"을 펼친 대목은 경쾌하게 반짝이는 지성의 남정호적 유희 정신을 잘 이어받은 산뜻한 정경이라고 보이도 좋을 것이다.

[월간 동녘 88. 8월호 무용평론가 채희완]

■ 전선애·최미란의 공동 안무작 "야누스"는 두 사람이 서로 공간상의 위치바꾸기와 한 아이덴티티의 공유 혹은 반반씩의 교환을 통해 깔끔한 2인무로 구성하였고 (이런 2인무라면 소극장이 더 알맞겠지만), 강미희의 "O지대"는 계속 등을 바닥에 붙인채 다리를 교묘하게 펴고 오므리고 꼬는 독특한 춤의 양식을 신인 강미희가 꽤 지구력있게 끌고 갔으며, 객원 안무가의 작품이었던 남정호의 "무서운 아이들"은 굵이 장 꼭또의 문학을 들춰낼 것 없이 춤공연 자체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작품이었고 아마 남정호의 작품중 가장 다양한 움직임이 사용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월간 객석 88. 7월호 무용평론가 김태원]

■ "한여름 낮의 꿈"의 경우처럼 극적인 요소나 동작이 갖는 상징성을 초월하여 순수절대의 공간미가 갖는 감동은 흔하지 않다.

의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유희성을 기초로 하여 원초적 생명력과 역동감으로 관객을 도취시킨 한마당 이었다.

[월간 객석 88. 8월호 시인 정영태]

■ 춤은 멀리 있는게 아니다. 본래 나와 가까이 있다가 멀리 "무대"라는 틀안에 숨어 버렸던 것이다. 그게 제자리를 찾아온 것일 뿐이다.

"주-□"의 몸짓은 앞으로도 이런 사실을 자주 확인시켜 줄 것이다.

[월간 크리스찬 타임즈 88. 9월호 문화부 김 심]



현대무용단 주-□은 88년 1월에 진취적이고 실험적인 무용공연을 통해 종래의 도식적이고 구태의연한 작업에서 벗어나 아직도 정착되지 못한 무용 프로페셔널리즘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또 다른 형태의 부산 무대예술을 가꾸고자 하는 의도로서 창단되었습니다. 회원으로는 회장 전선애를 주축으로 간사 김주순, 총무 강미희를 비롯하여 최미란, 김현숙, 김광순, 한은주, 박선영 등이 있고 남정호 교수님을 예술감독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주-□은 88년 1월 창단이후 5월21, 22일 창단 공연을 성황리에 치루었고 이어 5월28, 29일 대구 효무회 초청공연을 가진바 있으며 문화가 산책등 여러 보도기관에서 방송된바 있는 7월 한달간 광안리에서의 야외공연을 가졌습니다. 89년의 계획으로는 이번 정기공연 이후 6월 호암아트홀에서 열리는 국제 현대무용제에 참가하며, 8월에 여름 야외공연을 가지고 또 11월에는 일본에서 초청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주-□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회장 (757-0582) 간사 (622-5331~7) · 총무 (623-5456) 에게로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주-□은 회원과 후원회원의 회비로서 모든 경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이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대무용단 주-□ 후원회 명단

이경옥(회장)	강 상 학	강 정 기	권 등 속	김 갑 병
김 석 천	김 수 구	김 순 금	김 진 성	김 혜 속
박 박 남	배 용	신 무 련	신 보 균	이 부 곤
이 승 호	아 정 복	이 창 원	임 호 용	정 대 균
최 준 채	한 석 순	허 원		(가나다순)

예술감독: 남 정 호

기 획: 전 선 애

무대감독: 김 현 숙

사 진: 권 기 찬

조 명: 김 장 대